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 연구



2010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염명희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 연구

지도교수 박 원 용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염 명 희

염명희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2월 25일



주 심 역사학박사 조 세 현 (인)

위 원 문학박사 박 화 진 (인)

위 원 철학박사 박 원 용 (인)

## <목 차>

<b>I. 서론</b>	<b>1</b>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가. 연구의 목적	3
나. 연구의 방법	5
<b>II.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와 피라미드토론</b>	<b>5</b>
1.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역사 교육	5
2.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를 위한 역사교사의 과제	8
3.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으로서 토론의 유용성	14
4. 피라미드토론의 역사과 수업에의 적용	16
<b>III.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 개발</b>	<b>19</b>
1. 피라미드토론 적용 단원의 선정	19
2. 토론 준비를 위한 학습 자료의 제작과 활용	22
3. 토론의 절차와 토론 활동지의 구성	25
4. 수행평가에 반영	28
<b>IV. 실제 수업 적용 이후 결과 분석</b>	<b>30</b>
1. 연구 대상 분석	31
2. 설문조사 분석	31
가. 학년 초와 토론수업 1회 실시 후 설문조사 비교	32
(1) 설문내용과 결과	32

(2) 결과 분석	35
나. 토론수업 3회 실시 후 설문조사	41
(1) 설문내용과 결과	41
(2) 결과 분석	43
3. 토론활동지 분석	47
가. 동일한 대상(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표현하기	48
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다듬기	50
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52
V. 결론	54
참고문헌	58
부록	60



A Study of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pplying the Pyramid Debate

Myung Hee You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orean society is rapidly turning into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ducation to cultivate a perception of others based on pluralistic views or values. In order for students to have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and value through history, it is important to present students learning materials with various perspectives regarding historical facts; however, more important is how the students accept them. Therefore, the researcher had more interest i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an learning content and made the decision to write this thesis entitled 'A Study of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pplying the Pyramid Debate.'

Debate class is a good teaching method that allows students to read and analyze given learning materials and then clarify their thoughts and opinions, to accept others' opinions through communications with them and to objectify their opinions, acquiring various perspectives and values. The reasons behind why the researcher chose the pyramid debate method out of various types of debate classes were that it allows students to clarify their opinions, leads all the students in a class to participate in the debate through 1:1 debate, 2:2 debate, 4:4 debate and whole debate and follows such a simple procedure that even beginners can easily participate

in it.

This study aimed at grasping how significantly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pplying the pyramid debate impacts the cultivation of an understanding of history with various perspectives and values. To this end, the researcher developed a plan for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 applying the pyramid debate and then offered a pyramid debate class three times during the year 2009 while conducting a national history curriculum to 230 11th graders in Busan National Mechanical Technical High School. In order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pyramid debate class, surveys of the students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delivering the class. Contrary to the heated atmosphere they created during the debate class, they showed negative reactions to the debate class because they felt burdened with the class. They largely showed negative reactions to student-led classes as well as to debate class. As quantitative research through surveys alone could not produce significant results, the researcher also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that analyzed the actual content of the debate and the written materials the students recorded in their debate activity sheets during the class in order to grasp actual changes they show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ents displayed increasingly intensive interest and concentration along with further debate classes and got accustomed to it. In addition, as they read more reading materials, their ability to analyze thoughts improved. Furthermore, while forming their opin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oughts, they showed improvement in their creativity and imagination and came to recognize the diversity of opinions on a certain object and situation during debate. Especially, it is noteworthy to see students to develop attitudes to listen to others' opinions while expressing their opinions with confidence.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pplying the pyramid debate not only cultivates the understanding of history with pluralistic perspectives and various values but also improves historical thinking ability. As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pplying the pyramid debate method is a desirabl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corresponds with the aim of history education and meets the demand of this society, this study is substantially significant and expected to produce good results in the field of actual education.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007년 8월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sup>1)</sup> 2007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결혼 가운데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41%라는 통계가 나왔다.<sup>2)</sup>” 한국 사회도 급격하게 다인종, 다문화 사회<sup>3)</sup>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원적 관점이나 가치에 입각한 타자 인식을 함양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역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목이 될 수 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국사편찬위원회, 10:2006)에 “우리가 역사를 배운

---

1) 「서울신문」 2007년 8월 24일[<http://www.seoul.co.kr/news/>] 기사

2) 「연합뉴스」 2008년 4월 15일[<http://www.yonhapnews.co.kr/>] 기사

3) 박남수(「다문화 사회에 있어 시민적 자질의 육성-사회과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모색」, 『사회과 교육』 제33호, 101-102:2000)는 한국이 다문화 사회이며 적절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는, “첫째, 국내에 있어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다민족 사회화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 사회가 사회계층, 종교, 성차 등과 같이 다양한 문화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 사회라는 점이다. 자유주의 경제 체제하에 있어 사회계층간의 격차나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사고 등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동화주의 경향을 들 수 있다. 현행 교육은 다양한 문화적인 시야나 관점에서 사건,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통해 다원주의의 기반에 있는 가치, 태도를 형성케 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점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인종으로 인해 형성되는 다양한 문화뿐 아니라, 성별이나 지역, 사회계층 등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다양성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역사 수업 시간의 주교재인 교과서의 내용도 객관적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역사 기록이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 역사를 배울 때는 교과서의 내용마저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역사 교사들은 수업 중에 교과서뿐만 아니라 원 사료를 비롯한 다양한 관점의 읽기자료를 수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다양한 관점의 역사 기록을 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역사가의 가치관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실이나 대상에 대한 관점이 다양해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 기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객관화시킬 수 있다. 즉, 역사를 제대로 배운다면, 학생들은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sup>4)</sup>를 할 수 있다.

“역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사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균형 있게 파악함을 의미한다.”<sup>5)</sup> 왜냐하면 모든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는 보편성<sup>6)</sup>과 특수성<sup>7)</sup>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역사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세계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다양함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즉,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는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4)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5) 국사편찬위원회(『고등학교 국사』, 12:2006)

6) 국사편찬위원회(『고등학교 국사』, 12:2006)는 보편성을 “인간 고유의 생활 모습과 자유, 평등, 박애, 평화, 행복 등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전 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라고 설명하였다.

7) 국사편찬위원회(『고등학교 국사』, 12:2006)는 특수성을 “인간은 자신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역의 자연 환경에 따라 고유한 언어, 풍속, 종교, 예술, 그리고 사회 제도 등을 다양하게 창출하게 되는데 이를 그 민족의 특수성이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다원적 관점이나 가치에 입각한 타자 인식을 함양하는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역사교육은 교과서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과 객관식 평가<sup>8)</sup>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 풀이 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획일적인 가치의 주입식 교육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지향하는 역사수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가. 연구의 목적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세계사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부 교수학습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국사이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필요성<sup>9)</sup>을 절감하고 있었기

8) 샘 와인버그(『역사적사고와 역사교육』, 14:2006)는 “객관식 선다형 시험은 우리에게 정답만을 고르도록 요구하지만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 그 답을 선택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고 하였다. 변별력을 위하여 가장 타당한 정답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객관식 선다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업에서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위한 수업은 지양될 수밖에 없다.

9) 인간과 인간의 행적을 연구하는 역사 과목의 특성상 보편적 법칙성보다는 인간 개개인이 만들어 내는 특수성과 다양성을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학생들의 교과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구조화시켜 보편적 특징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가르치는 데 많이 치중하였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원적 관점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때문에 교수학습방법론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바람직한 역사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역사가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도록 이끌어 주면서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역사가들은 사료 분석에 토대하여 역사를 재구성하는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은 여러 학자들의 비판을 통하여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한 후 기록되어 진다.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절차는 토론의 과정과 유사하다.

토론을 통하여 개개인의 관점과 표현이 다양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타인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객관화시키고 보다 타당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다원적 가치에 입각하여 타자를 인식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토론은 가장 바람직한 역사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다.

그러나 토론수업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토론의 절차를 가르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토론수업을 기피한다. 그런데 피라미드토론은 토론의 절차가 간단하여 토론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학급 구성원이 모두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토론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적합한 토론방법이다. 이에,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함양과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 및 다원적 가치 함양을 위하여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위하여 개발한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이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다원적 가치와 다원적 역사 이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보는 것이다.

---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객관식 평가에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채택한 관점을 강의식으로 주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수업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역사교육의 본원적 목적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 나. 연구의 방법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이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으로 3개의 교수학습지도안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2009년 1개년 동안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8개 학급 2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국사 수업시간에 실제 적용하였다.

피라미드토론수업 적용 이후 학생들이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하고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게 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3회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 검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토론의 과정과 학습 활동을 기록한 글쓰기 자료인 토론활동지 분석을 병행하였다.

# Ⅱ.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와 피라미드토론

## 1.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역사 교육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과 같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자처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한국, 독일과 같이 민족 동질성에 입각한 단일한 민족국가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 나라도 많다. 그러나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애초에 허구적인 것이며 현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국가 간에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박용희(「민족사의 논리와 다민족, 다문화의 현실」, 『동학연구』 제26집, 168:2009)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민족 동질성에 입각한 단일한 민족국가임을 자처하고 있으나,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국가들은 전 근대 시기부터 이미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현대 자본주의는 인간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창출, 활용하여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므로, 각 국가들은 역사를 더 이상 하나의 단일한 민족의 역사로 서가 아니라, 범주를 달리하는 여러 다른 정체성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문화, 다인종 사회는 세계적 추세이며, 각 국가들은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역사교육의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역사교육의 방향성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임을 자처하는 국가의 역사교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김한중은 캐나다 BC주의 역사교육에 주목하였다. 김한중(「다문화 사회의 역사교육-캐나다 BC주의 경우」, 『역사교육연구』 제4호,14:2006)은 “캐나다에서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종적 편견을 줄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소수자의 권리를 받아들이고 존중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건 집단이건 간에 자신의 생활을 하거나 종교를 믿고, 관습과 가치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결국 캐나다의 다문화교육도, 캐나다 사회의 특성에 맞춰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을 기르는데 있

다.”

“사회구성원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과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그 문화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하여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그 사회와 구성원에 합리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생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sup>10)</sup> ... 문화들 사이의 유사성, 일상생활의 본질, 문화집단이 이루어놓은 성과 등 다른 문화에 대한 정보의 제공도 필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사고의 방식이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에 필요하다.”<sup>11)</sup>고 하였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대처하는 역사교육에서 교수학습내용 못지않게 교수학습방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수학습내용이 아니라 교수학습방법에 주목하게 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한국과 같이 여전히 혈통주의와 단일민족국가의 논리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국사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 교육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sup>12)</sup> 따라서 한국사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 즉,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은 직접적인 내용 지식을 가르치는 것 보다 교수학습방법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 더 바람직

---

10) 김남국(「다문화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 정치논총』 제 45집 4호, 117:2005)도 “다문화시대에 이상적인 시민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내면의 가치를 지지하고, 다른 사람과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11) 김한중, 앞의 글, 15쪽

12) 김한중(앞의 글:12)은 “역사교육에서는 자국사보다는 세계사에서 주로 다문화교육이 논의되었다. 그것은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자국사는 다문화교육에 부절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민족문화나 민족적 동질감에 대한 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자국사가 다문화교육에 그리 적합해보이지 않는다.” 고 하였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2.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위한 역사교사의 과제

현장에서 역사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를 위한 수업을 해야 함을 절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힘겨워 하고 있다. 특히 세계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고충이 많다.

최재호(「세계사 교육과정의 미래」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217-218:2008)는 “세계화는 다문화시대를 열어주었다. 그 어느 때보다 균형 감각을 갖추고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세상을 들여다보며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이 절실했다. … 제 7차 교육과정은 세계사에 나타난 중요한 갈등과 그 해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늘날 인류가 공유한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역사를 지양하고 지구촌적 관점에서 보다 폭넓은 지역의 역사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세계사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고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을 개탄해 하고 있다.

황지숙(「‘동아시아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208-213:2008)은 “상대화 시각에서 보면 동아시아라고 하는 공간은 지금까지 생각해온 국민국가의 틀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지역과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는 다원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자국·자민족 중심주의를 상대화하기 위해 일국의 틀을 넘어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교류를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상대화 시각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차이를 인정하는 시각이다. … 차이의 인정이라는 시각은 유럽 근대의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맥락에 따라 동아시아의 역사를 인식하고자 하는 시각이다.

비교의 방법은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이의 발견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재호와 마찬가지로 문화상대주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원적 역사 이해 관점의 연구 성과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사’라는 새로운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부담에 대해서도 피력하고 있다.

박중현(「한·중·일 역사교사 교류와 역사교과서 대화」,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287-289:2008)은 “글로벌화는 국가에 의한 통제나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역사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교육도 국제적인 협력, 상대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포용 등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내가 주변과 관계를 단절하고, 단지 나 자신만을 역사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면 역사는 제대로 전개될 수 없다. …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면 그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쓰는 동아시아사는 다른 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추구해야 할 목표는 ‘동아시아 시민 양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동아시아사’를 만든 우리 역사교육이 ‘동아시아 시민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 ‘정체성’과 ‘자존’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의 강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글로벌화로 동아시아의 각 국가들은 이미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되었으므로,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동아시아사’를 공동 집필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중현이 주장하는 바에는 동의하지만, 세계화와 맞물려 국가 중심의 패권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배타성을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국 사회에 뿌리 박힌 단일민족의 논리는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민족주의를 폐기할 수도 없다.

부산역사교사모임(「역사교육에서 민족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265:2008)은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교사든 탈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교사든 간에 이들은 모두 국사 교과서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 역사 수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국사 교과서는 대단히 ‘민족주의적’이다 … 국사 교과서를 충실히 가르치는 역사 교사라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교과서에 담긴 민족주의적 관점을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배타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인식한 교사들은 교과서의 민족주의를 상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수는 아직 미미하다.” 라고 국가 교육과정 속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안교과서의 제작이나 교사가 작성한 학습지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빠르게 바뀌는 21세기, 역사 교사들은 ‘민족주의’ 논쟁의 중심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국가나 민족을 대신할 뚜렷한 주체를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역사를 어떻게 쓰고 가르쳐야 할까? 민족과 함께 다양한 주체들을 차별 없이 살려낼 수 있다면 민족주의를 중심에 둔 역사교육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라고 하였다.

세계화 시대 세계시민의 가치와 태도에 대한 교육과 민족주의 교육<sup>13)</sup>을

---

13) 양정현(「포스트모던 역사 이론의 ‘민족’ 논의와 역사교육」,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308:2005)은 오늘날 ‘민족’은 실체이고, ‘국민국가’는 현실이며, ‘자국사 교육’은 당위이므로 ‘민족’을 부정하기 보다는 실체인 민족을 인정하되 개인이 민족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는 역사적 관점을 교육하기

병행하면서 ‘개방적 민족주의’라는 모순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역사 교사들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역사교사들의 역사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샘 와인버그(「다양한 시각으로 역사 응시하기」, 『역사적 사고와 역사 교육』, 276-277:2006)는 ‘사회(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는 사회(역사)와 관련된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식이 사실과 해석들의 축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신념이 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사실적인 모든 지식을 다 갖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접한다고 하여도 신념에 부합되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는 의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역사교사들의 역사관에 따라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수업이라도 내용과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도 앞의 서로 다른 여러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사회(역사)과 교사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역사의식의 차는 분명하며, 그 속에서 때로 학생들은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획일적 관점의 일방적 교육을 받는 것보다 교사들의 다양한 관점과 인식을 접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수용을 한다면 학생들의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와 다양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위한 수업을 하기에 앞서, 교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인지하여 바람직한 역사관을 갖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 교사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양호

---

보다는 학생들이 주체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고, 반면에 이영호(「세계사 교육에서의 ‘타자 읽기」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437:2005)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자국사를 중시하는 전통은 ‘자기’와 ‘타자’들을 동시에 해체하려는 세계사 교육에 지속적인 안티테제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정현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환(「역사 학습의 인식론적 모색」,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47:2005)은 “역사를 가르치는 문제에 접근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수업모형이나 학습 방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역사 인식이다. … 역사인식의 출발점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에서 과거를 보는 것이다. … 현재의 관심에 역사적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역사를 연구하고 학습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며 교사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항상 관심을 갖고 비판적 안목을 갖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현재 한국사회가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는 역사 교사들이 반드시 주목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역사교사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술된 국사 교과서를 비판 없이 가르치는 것은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변화해가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교과서에 있는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여 가르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역사 수업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역사교사의 역사인식이 수업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교사가 올바른 역사인식 태도를 갖고 있다면,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민수(「고등학생의 역사인물 이미지 형성과 변형-홍선대원군과 명성황후 사례-」, 『역사교육연구』 제6호, 42-53:2007)는 고등학교 1학년 1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사수업 중 홍선대원군과 명성황후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역사 인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행 이미지가 역사 수업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연구를 하였다.

결과는 “학생의 대다수는 선행이미지와 다른 정보를 아예 무시하거나,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고 기존의 선행 이미지를 일거에 없애고, 180° 다른 이미지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역사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대부

분의 학생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역사인물의 행동을 그가 살았던 과거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현재적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sup>14)</sup>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이 3학년이 되었을 때 근현대사 수업 시간에 다시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고 자료를 분석<sup>15)</sup>했는데, 역사인물을 과거 맥락에서 이해하는 훈련이 안 된 학생들의 대부분이 1학년 때 역사 학습결과를 지우고 자신의 역사인물에 대한 선행이미지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민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학생들이 역사를 과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극화 수업을 활용하고,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정보의 공유와 자신의 주관적 이해를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객관화하는 토론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역사인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16)</sup> 김민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교사의 역사인식이 학생들의 역사인식과 소통하기 위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김한중(「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제8호, 259:2008)은 학교 현장에서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위한 역사 교육을 실시하려면,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교재내용을 서술하고, 학생들의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교사는 사고의 방식을 다양화해서 분석적 사고뿐 아니라 상상적,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 내야 한다. 단 역사적 사고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사료로

14) 김민수(「고등학생의 역사인물 이미지 형성과 변형-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사례-」, 『역사교육연구』 제6호, 9:2007)는 “학생들은 역사교사가 제공하는 역사지식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 가치관, 세계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다.”고 하였다.

15) 김민수(「일반계 고등학생의 근현대사 이해」, 『제10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학술 자료집』, 78-79:2009)

16) 2009년 10월 10일 “학생은 어떻게 역사와 소통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국 역사교육학회 주최 학술회의가 있었는데 종합토론 시간에 밝힌 의견이다.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때, 역사를 아는 것은 다원적 가치와 타자 이해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이 역사가처럼 사고하고 학습하면, 역사적 사고력도 신장되고,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다원적 가치에 의한 타자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를 위한 역사교육을 하기 위하여 역사교사들은 항상 시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관점의 글 읽기를 통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태도를 가져야 하고, 역사의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가치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교수학습내용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역사교사는 학생들에게 역사지식의 완제품을 던져주는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역사인식과 역사적 사고력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 3.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으로서 토론의 유용성

역사수업에서 역사의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은 토론수업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논증이나 검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여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는 말하기, 듣기 활동”<sup>17)</sup>으로서, “참여자들이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은 보통 ‘토의’, 참여자들이 찬반으로 뚜렷하게 대립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토론은 찬반 토론(debate)”<sup>18)</sup>으로 구분

17) 정문성(「토의, 토론 수업의 개념과 수업에의 적용모델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제12집 제1호, 150:2004)

한다. 그러나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를 위한 토론 수업에서는 토론과 토의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토론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적인 토론을 할 수 있으나,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토론이라는 용어가 논의를 거쳐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토론은 결국 좁은 의미로는 찬반토론을, 넓게는 소통의 의미로 볼 수 있다. … 토론과 소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말하기’와 ‘듣기’다. … 소통으로서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사람들은 ‘같은 말’에 대해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답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간단한 전달사항이 아닌 학습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를 통하여 학습 내용이 보다 쉽게 이해된다. 셋째,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의 사고를 통할 때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시각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시각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 사람과 함께 문제해결을 할 때, 다양한 시각의 활용도 가능해진다.”<sup>19)</sup>

토론수업은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고 학습내용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으므로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위한 역사 수업에 매우 유용한 교수학습방법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바람직한 역사 교수학습방법은 학생들이 역사가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도록 이끌어 주면서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인데,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과정은 토론의 과정과 유사하다. 역사가들은

---

18)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세상을 바꾸는 발표와 토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106:2006)

19) 강병재(『생각의 힘을 키우는 토론수업』, 교보문고, 28-32:2007)

자료 비판을 통하여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장을 하며, 그 주장은 다른 역사가들에 의해 다시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역사서에 기록된다.

토론의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역사가처럼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갖게 되고, 학생 개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은 토론을 통하여 타인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한다.

따라서 토론수업은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4. 피라미드 토론의 역사과 수업에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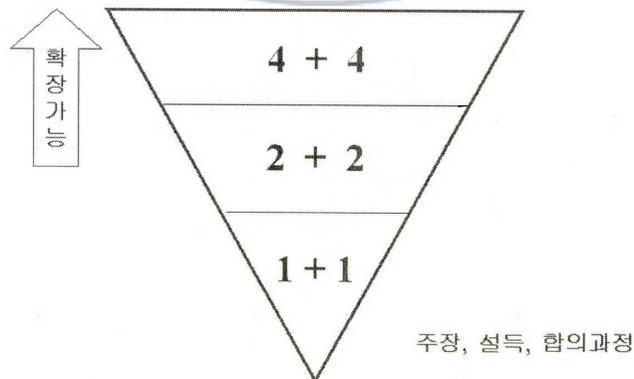
‘일반적인 토론형식으로 여러 사람이 둥글게 모여 앉아 토의하는 자유토론이라 불리는 원탁토의,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회의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발언을 통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여 발상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여섯 사람씩 짝지어 분단을 만들고 6분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가 토의하는 방식의 버즈 세션, 몇 사람을 선출하여 청중 앞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패널, 사회자의 지도 아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간략한 발표를 한 다음 질의·응답하면서 토론하는 포럼, 전문가가 미리 원고를 준비하여 강연식으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와 청중이 질의 응답하는 심포지엄, 교수의 지도하에 교수-학생이 공동 토론하는 연구수업 형태인 세미나 등이 있다.’<sup>20)</sup>

20) 강병재(『생각의 힘을 키우는 토론수업』, 교보문고, 75:2007)

다양한 형태의 토론방식이 있으나, “교실 토론을 할 때는 토론의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고 자유롭게 토론하게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교실 토론에서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두 번의 발표만으로 토론을 끝낸다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교실 토론은 발표 시간을 줄여서 부담을 적게 하고, 발표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이 될 필요가 있다.”<sup>21)</sup> 이에 부합되는 토론방식으로 피라미드토론이 있다.

토론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학생 모두 토론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모든 학생들을 토론에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토론수업을 기피한다. 그런데 피라미드 토론은 학급 구성원 모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토론 초보자도 토론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방식이므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피라미드 토론(Pyramid Debate)’은 엄밀하게 말하면 역 피라미드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21) 김주환(『교실 토론의 방법』, 우리학교, 55:2009)

그림<sup>22)</sup>과 같이 먼저 1 대 1로 상대방과 토론 및 토의과정을 거쳐 합의를 본 후, 다시 2 대 2로 확장시켜 4명이 함께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본인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해·설득시키는 훈련을 터득하게 하며, 토론 내용을 준비하는 과제도 수행할 수 있는 토론 방법이다.’<sup>23)</sup>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주제에 대한 학습을 한다. 적절한 용어 사용이나 근거를 찾기 위하여 교사가 제시한 학습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교과서 내용도 분석한다. 자신의 주장이 정해지면 토론을 하게 되는데, 1 대 1 토론이 끝나면 토론의 상대는 이제 한 팀이 된다. 두 사람이 다른 상대편인 2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한 공동 작업을 한다. 이렇게 4사람, 8사람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논리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고, 상대편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토론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적용할 때 효과적이다. 단, 시간이 부족하여 여유 있게 토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배당에 유의해야 한다.

토론을 통하여 생각의 차이를 인식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합의를 통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하여 한 팀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배운다. 피라미드토론을 통하여 학생들은 읽기자료를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힘 즉 역사적 사고력을 점진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고, 토론의 과정에서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와 함께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라미드토론은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으로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22) 송창석(『새로운 민주시민교육 방법』, 백산서당, 154:2001) 그림을 편집

23) 송창석(앞의 책, 154쪽)

### Ⅲ.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 개발

#### 1. 피라미드토론 적용 단원의 선정

“다문화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구성 방법의 하나는 정치사 대신 사회사와 문화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정치사가 국가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 사회사나 문화사는 지역적 특성이나, 인종이나 계층의 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라는 김한중(「다문화 사회의 역사교육-캐나다 BC주의 경우」, 『역사교육연구』 제4호, 33:2006)의 주장처럼 다원적 역사 이해를 위한 토론 수업의 주제는 사회사나 문화사가 적합하다.

그러나 현재 정치가나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듯이, 과거의 정치가나 정책도 역사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sup>24)</sup>이 아니라면, 정치사도 충분히 다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즉,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위한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수업은 역사 교과서 대부분의 단원에 적용될 수 있다.

24) 교과서의 관점도 변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 없이 어설프게 접근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인데,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위해서는 국사 교과서도 검인정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토론의 주제를 특정 분야에 국한시키지 않고 고고학,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 등 다양한 단원<sup>25)</sup>에서 선정하였다. 세 차례 토론 수업의 주제는 ‘청동기 시대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사회 변화 추론하기’, ‘병자호란 당시 상황에서, 주화론과 척화론 중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할까?’,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를 통해 세도정치 시기의 사회 모습 추론하기’이다.

‘청동기 시대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사회 변화 추론하기’는 학생들이 고고학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청동기 시대의 유적, 유물을 근거로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을 추론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이므로 선정하게 되었다.

‘병자호란 당시 주화론과 척화론 중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가?’는 주화론과 척화론을 주장한 인물들의 주장과 그 배경을 통하여 그 주장의 타당성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다.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위급한 국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짐을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과거 역사적 상황을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는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관<sup>26)</sup>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찬반의 쟁점이 뚜렷한 흥미로운 주제이므로 선정하게 되었다.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를 통해 세도정치 시기의 사회 모습 추론하기’는 역사를 감성으로 느끼고 지성으로 이해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19세

---

25)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분야사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전문계 고등학교이어서 국사 수업 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입수능에서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이 거의 없으므로, 동 교과 교사와 협의하여 국사 교과서에서 주로 정치사 단원을 가르친다. 필요에 따라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부분도 함께 통합적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26) 김주환(『교실 토론의 방법』, 우리학교, 60:2009)은 “교실 토론의 주제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치 문제들이다. 가치관의 차이를 토론 주제로 삼게 되면 학생들의 가치 판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가치 문제에 대한 판단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교실 토론의 주제로 삼으면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 전반 세도정치 시기 절대적, 상대적 빈곤에 시달렸던 백성들의 울분은 과거 먼 이야기만은 아닌 듯하다. 지금 현재 어디선가 그와 유사한 일들이 진행 중일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유사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당시 백성들의 고통과 분한 마음을 과거의 맥락에서 감성으로 느끼고 이해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회화와 시(詩)같은 예술 작품에 주목하게 되었다. 과거의 예술 작품에는 작가가 처해진 사회적 상황과 그에 따른 가치관이 감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과거 예술작품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감성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의 작품이라도 작품의 느낌과 작품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사회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의 작품을 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다양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도 같은 작품을 보면서 다르게 느끼고 이해한다. 작품에 대한 이해는 읽기자료에 비해서 훨씬 자의적이고 다양하다. 역사를 감성으로 느끼는 수업은 역사를 과거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역사를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대하고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토론수업을 병행하여 주관적 감성을 객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느끼면서 역사를 바람직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사를 통하여 정치·사회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작품과 가치관을 경험하고 수용하면서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주제이므로 선정하게 되었다.

## 2. 토론 준비를 위한 학습 자료의 제작과 활용

김한중(「역사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역사 수업에 미치는 영향」,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130:2005)은 ‘역사는 하나의 해석이며, 학생들도 역사 수업을 통해 이를 알고 자기 나름의 역사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학생 활동을 강조한다. 이런 수업은 다양한 내용보다 자료 위주로 구성되며,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이 학습 활동의 중심을 이룬다.’라고 하여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 자료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수업 전에 수업 전개의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구상하고, 학습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토론수업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이 토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야 한다.

‘학습 자료는 수업을 쉽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육용 자료를 가리킨다. 자료의 표현 형식에 따라 읽기 자료와 비 읽기 자료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읽기 자료는 문헌 사료와 같이 주로 글로 된 자료이며, 비 읽기 자료는 사진이나 그림, 영상과 같이 글 이외의 형식으로 된 자료다.’<sup>27)</sup> 비 읽기 자료는 토론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동기 유발 자료<sup>28)</sup>로 활용할 수 있고, 읽기 자료는 토론에서 학생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 논거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다.

27) 김한중(「역사교육의 교재」,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 함께, 129-130:2007)

28) 여희숙(『토론하는 교실』, 파란자전거, 146:2009)은 ‘동기 유발 자료는 펌프의 물을 길어 올릴 때 썼던 마중물 한 바가지와 같다. 토론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거나 주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토론 수업의 도입부에 토론의 주제에 따라 각종 통계 자료, 만화, 그림, 사진, 플래시 동영상, TV 드라마, 역할극 등 다양한 동기 유발 학습 자료를 활용하면 학습의 집중도와 흥미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동기 시대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사회 변화 추론하기’를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청동기 시대 유물, 유적 사진을 PPT 자료로 제작하였다. 교과서에 있는 사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교과서이외에서도 좋은 사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가급적 유물, 유적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1개의 슬라이드에 1개의 사진을 삽입하였다. 고고학 분야이므로 읽기자료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았고, 토론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유물과 유적에 대한 PPT 자료의 이미지가 기억나지 않을 때는 교과서에 있는 사진 자료를 참조하게 하였다.

‘병자호란 당시 주화론과 척화론 중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가?’에서는 병자호란과 관련된 플래시 동영상<sup>29)</sup>을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하였다. 플래시 동영상은 병자호란 당시의 정황을 담은 2분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 자료로서, 초등학생 수준이지만 병자호란을 함축적으로 묘사한 재미있는 내용이므로 고등학생들도 흥미를 보였다.

읽기 자료에서 주화론(主和論)과 척화론(斥和論)에 대한 글은 『지천집』과 『인조실록』에 있는 원 사료를 활용하여 과거의 맥락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병자호란 당시 현실적인 정치가로서 최명길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논문<sup>30)</sup>의 일부를 제시하여 논문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를 통해 세도정치 시기의 사회 모습 추론하기’에서는 세도정치 시기의 사회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sup>31)</sup>를 PPT 자료로 제시하고, ‘애절양’과 ‘누각아집

29) 에듀넷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30) 한명기(「최명길, 현실에 발을 디딘 탁월한 정치가·외교가」, 『제 14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창의·혁신 리더십 교육』, 문화재청, 104-109:2008)

31) 회화 작품으로는 ‘조대비 초상’, 김정희의 ‘세한도’, 남계우의 ‘나비’, 이인문의 ‘누각아집도’ 문학작품으로는 이학규의 ‘화반죽사’, 정약용의 ‘애절양’을 제시하였다.

도'를 보고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표현한 1분 정도의 즉흥극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여 주었다.

처음 의도는 19세기 전반의 회화와 시(詩)를 보고 학생들이 느끼는 감성을 몸으로 표현하는 연극놀이<sup>32)</sup>를 할 생각이었으나, 학생들이 몸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학생들의 감성을 이끌어 내고 몸으로 표현하여 즉흥극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되었으므로, 같은 동학년 학생들의 즉흥극을 동영상으로 보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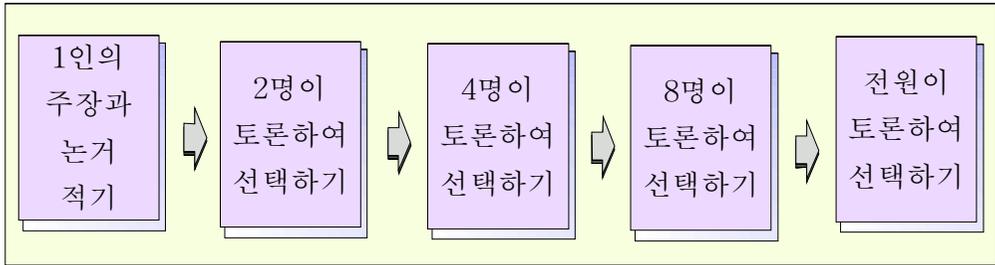
연극놀이에 미련이 남아서, 회화와 시(詩)를 통해서 느낀 감성을 즉석에서 간단하게 몸으로 표현하게 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잠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감성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수업은 역사적 상황을 과거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도 향상시킬 수 있다. 단,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PPT 자료를 통해서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를 학습 자료로 제시하였지만, 시청각 자료를 보고나서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우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이라도 문서화된 읽기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PPT 자료에서 제시한 회화와 시(詩)와 함께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다시 읽기자료로 제작하였다.

---

32) 나무를 심는 사람들(『연극으로 놀며 배우며』, 나라말, 10:2002)이라는 교사 연극놀이 단체는 ‘연극놀이란 연극의 교육적 활용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연극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즐기려는 데에 목적을 둔, 청소년들의 새로운 연극 경험을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연극적 기법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극이 ‘보는 즐거움’을 주는 데 치중하는 반면에 연극놀이는 ‘연극을 만드는 과정과 참가자들의 체험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극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였다.

### 3. 토론의 절차와 토론 활동지의 구성



위의 그림에서 제시한, 교실에서 실시한 피라미드토론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사가 제시한 학습 자료와 교과서를 참조하여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토론 활동지에 적는다.

(나) 짝과 들어서 두개의 의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이 때 자신이 주장한 의견이 선택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한다.

(다) 네 명이 2개의 의견 중에서 1개를 선택한다. 이때부터는 자신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태도는 배제하고,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선택한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며, 논거를 제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라) 8명이 2개의 의견 중에서 1개를 선택한다. 논거가 부족한 것을 버린다. 이 때 자연스럽게 사회자가 정해지면 수월하게 토론이 진행된다. 선택된 1개의 의견을 준비된 카드<sup>33)</sup>에 적는다. 전체토론을 대비해서 모두의 대표 학생을 뽑는다. 가급적 자신의 의견이 선택된 학생을 대표로 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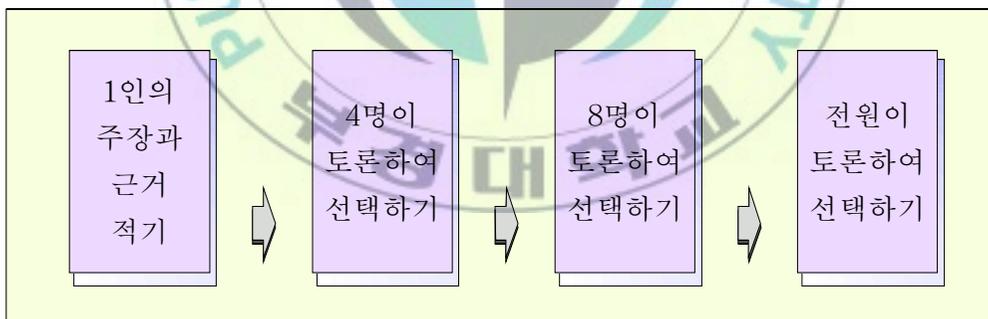
33) 매시간 수업 준비물(B4사이즈 카드, 매직펜) 챙기기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칠판에 적어도 되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빔 프로젝트로 보여 주거나, 디지털 카메라를 실물 화상기처럼 활용하여 토론 활동지의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다.

(마) 총 4개의 의견이 모아지면 각 모둠의 대표 학생이 의견이 적힌 카드를 들고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 발표하고 질문을 받는다. 또는 선생님이 사회를 맡아 하나씩 의견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바) 최종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발표와 질문, 대답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 피라미드토론 과정 중 탈락된 의견이지만 학생이 원하면 발표하게 하고, 다른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토론하게 하면 소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다.

피라미드토론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변형시킬 수도 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2개 이상의 의견을 선택하게 하고자 한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1 대 1 토론을 거쳐 2 대 2 토론하는 과정을 4명이 토론하는 소 모둠 토론으로 대체하고, 4명의 소 모둠 토론에서 2개의 의견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병자호란 당시 상황에서, 주화론과 척화론 중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할까?’는 찬반이 분명한 쟁점 형 토론으로 주화론과 척화론 중 1개의 주장을 선택하면 되므로 일반적인 피라미드토론방식으로 토론을 하였고, ‘청동기 시대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사회 변화 추론하기’와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를 통해 세도정치 시기의 사회 모습 추론하기’는 학습 자료를

통하여 당시 사회 모습을 추론하는 토론이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므로 2 대 2 토론을 생략하고 4명 단위의 소 모둠 토론에서 2개의 의견을 선택하게 하였다.

토론 활동지는 학번, 토론의 주제, 각 토론의 절차<sup>34)</sup>에서 선택된 의견, 토론의 결과를 재정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이 끝나면 토론활동지를 회수하여 수행평가에 반영하므로 학번을 적게 하였다. 그리고 피라미드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변화를 볼 수 있고 학생들이 토론 과정을 정리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각 토론의 절차에서 선택된 의견을 모두 적게 하였다.

토론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토론의 결과를 재정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토론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면, 학습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sup>35)</sup>

학습 활동은 토론의 주제에 따라 달라진다. ‘청동기 시대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사회 변화 추론하기’에서는 역사적 상상력과 내러티브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역사 일기 쓰기를 하였고, ‘병자호란 당시 상황에서, 주화론과 척화론 중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할까?’에서는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인물평도 달라짐을 알게 하기 위하여 최명길에 대한 인물평 쓰기를 하였다.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를 통해 세도정치 시기의 사회 모습 추론하기’

---

34) 토론 절차에 차이가 나면, 토론 활동지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35) 송창석(앞의 책 22쪽)은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서 시청각 매체의 활용효과와 학습방법에 따른 기억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읽기의 경우에는 10%만이 기억으로 남게 되고, 강의는 20%, 시각매체를 활용할 경우에는 50%를 흡수하게 된다. 교육과정에서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경우에는 90%정도를 기억하게 되므로 참가자들이 직접 토론에 참가하거나 다른 참가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양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글로 쓰게 하고 말로 발표하게 하여 서로 듣게 하는 것을 반복하면 학습 이해도는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서는 19세기의 작가가 그 시대의 모습을 작품에 반영하였듯이, 학생들도 19세기의 모습을 ‘세도정치’의 네 글자 사행시로 표현하게 하였다.

#### 4. 수행평가에 반영

‘중등 사회과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토론수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습자의 수업 참여 가능성과 토론수업의 평가가능성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사회과 교육에서 토론수업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 이질적인 참여자들을 토론에 참여시키는 방법 및 토론을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의 기법에 대한 관심과 안내가 선행되어야 한다.’<sup>36)</sup>

피라미드토론방식을 수업에 적용하면,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발표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습욕구가 외적동기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칭찬과 인정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토론수업을 하면 학습의 이해도가 향상되므로 객관식 지필평가에 잘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한 얘기일 뿐이다. 학생들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토론하는 과정을 즉시 성적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수행평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토론수업을 수행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수업하는 학생 수를 감안할 때,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면서 수

36) 오연주(「토론수업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중등 사회과 교사의 인식」, 『사회과 교육』 제 45권 2호, 134:2006)

월해야 한다. 김주환(앞의 책, 155쪽)은 “교실 토론에서 토론의 평가는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기보다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 평가 항목은 대체로 자료 준비 정도, 논리 전개의 적절성, 발표력, 협력하는 태도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김주환의 주장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정한다면, 토론수업을 수행평가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듯하다.

수행평가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공지된다. 따라서 토론수업의 평가는 아래 도표에서 제시한 수행평가 연간 계획의 틀 안에서 하여야 한다.

### 2009학년도 수행평가 연간 계획<sup>37)</sup>

평가 영역	시기	평가 내용	세부 채점 기준
학습 활동 (100점)	학기 중 수시	수업 준비 및 참여 수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점을 기본 점수로 부과한 후, 수업 중 학습 활동에 따라 1점씩 가감한다.</li> <li>• 감점 요인 : 수업 준비 미비, 수업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 수업 중 제시한 과제 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li> <li>• 가점 요인 : 교사의 발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우수한 답변을 했을 때, 수업 중 제시한 과제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였을 경우</li> <li>• 100점을 초과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li> <li>• 한 학기 수업을 수료했으므로, 40점 미만이 되도록 감점하지 않는다.</li> </ul>
과제 수행 (100점)	학기 중 수시	과제 수행 결과물 수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중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 과제 수행이 끝나면 즉시 검사하여 상, 중, 하 3단계 평가한다.</li> <li>① 상 : 과제 결과물이 우수한 경우</li> <li>② 중 : 과제 결과물이 보통인 경우</li> <li>③ 하 : 과제 결과물이 미비한 경우</li> <li>• 학기 말, 전체 과제 수행의 결과를 과제 수행 여부와 개별 과제결과물의 등급을 기준으로 최종 5단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li> </ul>

37) 성적은 학기 단위로 산출되며, 한 학기 성적에서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은 30%이다. 영역별로는 학습활동영역을 20%, 과제수행영역을 10% 반영하였다.

		① 1등급(100점) : 과제결과물을 모두 제출하고, 개별과제결과물 등급 평균이 ‘중’ 이상일 경우 ② 2등급(90점) : 과제결과물을 모두 제출하고, 개별과제결과물 등급 평균이 ‘중’ 미만일 경우 ③ 3등급(80점) : 과제결과물을 제출회수의 평균이상으로 제출하였고, 개별과제결과물 등급 평균이 ‘중’ 이상일 경우 ④ 4등급(70점) : 과제결과물을 제출회수의 평균이하로 제출하였거나, 과제결과물을 제출회수의 평균이상으로 제출하여도 개별과제결과물 등급 평균이 ‘중’ 미만일 경우 ⑤ 5등급(40점) : 과제 결과물이 없더라도 한 학기 수업을 수료했을 경우
--	--	---

토론수업 과정의 평가는 주로 학습활동 영역에 반영하였다. 토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감점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발표<sup>38)</sup>를 하면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었다. 토론의 과정을 팀별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변별력 있게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토론활동지는 학생들의 토론 참여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이므로 토론수업이 끝나면 회수하여 과제수행영역에 반영하였다.

## IV. 실제 수업 적용 이후 결과 분석

38) 모둠 대표로 전체 토론에 참여하거나, 전체 토론에서 발표한 내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질의를 하는 경우, 소수의견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발표하는 경우, 토론이후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활동 내용을 자발적으로 발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장난스런 내용이나, 비논리적인 잘 못된 주장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단, 약간 비논리적인 내용이어도 창의적이고 참신한 의견을 발표했을 때는 내용 첨삭을 하면서 점수를 부여하였다.

## 1. 연구 대상 분석

연구 대상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2학년 기계과 8개 학급 230명의 학생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은 평균적으로 중학교 성적 40%중반이므로, 학업 수행 능력은 일반 인문계 학생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는다. 과별로 학생을 모집하므로 학급 간 학업 수행 능력의 차는 많이 나지만, 학급 내 구성원들의 학업 수행 능력 차는 크게 나지 않으므로 교사가 수업하기에는 좋은 대상이다.

그러나 최상위권 학생이 없고, 공업계를 지원한 학생의 특성<sup>39)</sup>상 사회 과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말하기와 글쓰기가 잘 안 되므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을 과별로 모집하므로 학급 간 학업 수준 차가 심해서 학급 간 성적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문 조사와 토론활동지 분석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산출하였다.

## 2. 설문조사 분석<sup>40)</sup>

39) 안창규·안현의(한국가이던스, 2008)의 HOLLAND 진로(적성) 탐색검사를 2009년 3월 17일 실시하였는데, 결과 분석을 해보니 한 학급에서 R성향의 학생이 28명 중 18명으로 64.29%였다. R유형의 심리적 학습 태도는 언어적 교류보다는 작업이나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학습과제를 제시하면 더 잘 수행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공부하고 단계별로 학습해 가는 과제를 좋아한다고 한다. 토론수업에 부적합한 유형이지만, 토론의 유형 중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피라미드토론은 비교적 잘 수용하였다.

40) 설문 조사 대상 인원이 학년 초에는 225명이었고, 1학기말에는 214명, 11월에는 206명이다. 학생들의 전·출입, 출결, 행사 등의 변인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난다.

## 가. 학년 초와 토론수업 1회 실시 후 설문조사 비교

### (1) 설문내용과 결과

국사과 수업 설계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연구자의 자작 설문지를 사용하여 ‘국사 교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3월 1주 수업시간에 실시하였다. 토론수업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토론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함께 물어 보았다.

1학기말에 한 학기 국사 수업 이후에 국사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년 초에 사용한 똑같은 설문지로 ‘국사 교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7월 2주 수업시간에 실시하였다. 4월 초에 토론수업을 1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도 함께 물었다. 학년 초의 설문과 1학기 말의 설문내용이 같으므로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내용과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학년 초와 토론수업 1회 실시 이후 1학기말 설문내용의 결과 비교

번호	문항 내용	선택지문				
		①	②	③	④	⑤
1	국사 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매우 흥미 있다	흥미 있다	보통이다	흥미 없다	싫어한다
	학년 초	5(2.22%)	79(35.11%)	101(44.89%)	28(12.44%)	12(5.33%)
	1학기 말	38(17.76%)	69(32.24%)	74(34.58%)	19(8.88%)	14(6.54%)
2	국사 수업 내용 중 가장 흥미 있는 부분은?	사건의 인과 관계	현재 내 삶과의 관련성	과거 사람들의 일상생활	역사적 인물의 인간적인 면	제도 개혁이 그 사회에 미친 영향

	학년 초	25(11.11%)	40(17.78%)	73(32.44%)	40(17.78%)	47(20.89%)
	1학기 말	45(21.03%)	28(13.08%)	75(35.05%)	34(15.89%)	32(14.95%)
3	국사 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아주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
	학년 초	10(4.44%)	48(21.33%)	104(46.22%)	45(20.00%)	18(8.00%)
	1학기 말	11(5.14%)	41(19.16%)	101(47.20%)	48(22.43%)	13(6.07%)
4	국사 수업 내용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용어	사건의 인과 관계	전체 시대상 파악	역사의 흐름 파악	현재 내 삶의 관련성
	학년 초	37(16.44%)	23(10.22%)	67(29.78%)	66(29.33%)	32(14.22%)
	1학기 말	34(15.89%)	21(9.81%)	67(31.31%)	66(30.84%)	26(12.15%)
5	국사 수업의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식 배양	교과서 내용 파악	올바른 역사관 형성	역사와 관련된 상식 습득	현재 내 삶의 문제 해결에 시사적 도움 제공
	학년 초	10(4.44%)	15(6.67%)	93(41.33%)	89(39.56%)	18(8.00%)
	1학기 말	10(4.67%)	21(9.81%)	87(40.65%)	68(31.78%)	28(13.08%)
6	국사 수업이 현재 시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
	학년 초	6(2.67%)	56(24.89%)	131(58.22%)	25(11.11%)	7(3.11%)
	1학기 말	13(6.07%)	56(26.17%)	111(51.87%)	22(10.28%)	12(5.61%)
7	국사 수업에서 가장 바람직한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토론식	탐구식

	수업 형태는?					
	학년 초	135(60.00%)	4(1.78%)	32(14.22%)	28(12.44%)	26(11.56%)
	1학기 말	123(57.48%)	24(11.21%)	32(14.95%)	21(9.81%)	14(6.54%)
8	토론 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가?	자주 해봤다	해본 적은 있다	해본 적 없다		
	학년 초	3(1.33%)	145(64.44%)	77(34.22%)		
	1학기 말	6(2.80%)	185(86.45%)	23(10.75%)		
9	토론 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매우 흥미 있다	흥미 있다	보통이다	흥미 없다	싫어한다
	학년 초	3(1.33%)	35(15.56%)	89(39.56%)	66(29.33%)	32(14.22%)
	1학기 말	9(4.21%)	40(18.69%)	89(41.59%)	52(24.30%)	24(11.21%)
10	(9번에 ①, ②를 답한 학생만 답함) 토론 수업이 흥미 있는 이유는?	학생 중심의 활동이 많아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어서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근거를 알 수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학년 초	3(7.89%)	6(15.79%)	5(13.16%)	13(34.21%)	11(28.95%)
	1학기 말	4(8.16%)	12(24.49%)	7(14.29%)	20(40.82%)	6(12.24%)
11	(9번에 ③, ④, ⑤를 답한 학생만 답함) 토론 수업이 흥미 없는 이유는?	귀찮아서	토론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여러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서	상대방의 의견을 차분히 듣고 있기가 힘들어서
	학년 초	84(44.92%)	16(8.56%)	32(17.11%)	47(25.13%)	8(4.28%)
	1학기 말	78(47.27%)	9(5.45%)	43(26.06%)	31(18.79%)	4(2.42%)
12	역사적 사고력 이란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통찰력	역사에 대한 비판력	역사적 사실에	역사적 사건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				대한 이해	대한 탐구 분석력
	학년 초	12(5.33%)	17(7.56%)	22(9.78%)	117(52.00%)	57(25.33%)
	1학기 말	16(7.48%)	30(14.02%)	37(17.29%)	96(44.86%)	35(16.36%)
13	다음 중 바 람직한 역 사의식 함 양에 가장 도움을 주 는 경우는?	사극 시청	토론식 역사수업	강의식 역사수업	역사관련도 서 읽기	현장체험학 습(유적지 답사)
	학년 초	80(35.56%)	11(4.89%)	36(16.00%)	40(17.78%)	58(25.78%)
	1학기 말	75(35.05%)	20(9.35%)	58(27.10%)	30(14.02%)	31(14.49%)

## (2) 결과 분석

학년 초 국사 과목에 대해서 37.33%의 학생이 흥미가 있다고 답변<sup>41)</sup>하였고, 17.77%의 학생이 흥미가 없거나 싫다고 답변하였다. 학생들이 국사 과목에 대하여 대체로 흥미를 느끼고 있으며 국사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학기 말에는 국사 수업에 흥미를 보인 학생이 50%로 늘었다. 국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년 초 조사에서 흥미가 있는 부분은 50.22%의 학생이 ‘과거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역사적 인물의 인간적인 면’이라고 답변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역사의식보다는 과거 사실 자체에 흥미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제도 개혁이 그 사회에 미친 영향’에 흥미를 느낀다고 답한

41) 같은 질문을 2006년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인문계열 학생 160명에게 했을 때, 47.5%의 학생이 역사에 흥미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교육과정이 어떤 계열인가 하는 변인이 조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이 20.89%라는 것이다. 2008년 9월에 본교 2학년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을 때는 ‘제도 개혁이 그 사회에 미친 영향’에 흥미를 느낀다고 답한 학생이 11%였다. 흥미도의 변화에 미친 변수는 다양하겠지만 현재 정권의 변화와 함께 법·제도의 개정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사회의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다. 학생들이 법·제도의 개혁이 그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어렵듯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학교 현장에서만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학년 초에 흥미를 보인 분야와 학기 말에 흥미를 보인 분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사건의 인과 관계’에 흥미를 보인 학생이 11.11%에서 21.03%로 늘어난 것은 국사 수업 중 교사가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듯하다.

학년 초 국사 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25.77%의 학생이 쉽게 생각하고, 28%의 학생은 어렵게 느끼며, 46.22%의 학생이 보통이라고 답변하였다. 국사 과목을 다소 어렵게 느끼고 있다. 29.78%의 학생이 ‘전체 시대상 파악’을, 29.33%의 학생은 ‘역사의 흐름 파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학생들이 미시적인 내용보다 거시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사 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1학기 말 조사는 학년 초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다. 중학교 과정에 비해서 수업 중 학습 내용과 지필평가 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았고 특히 개별적인 내용은 잘 기억하고 이해하면서도 한 시대의 특징을 추론하거나 흐름을 파악하는 종합적인 사고력과 관련된 부분은 어려워했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 모형 개발이 시급하다.

학년 초 국사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 학생들의 41.33%가 ‘올바른 역사관 형성’, 39.56%가 ‘역사와 관련된 상식 습득’이라고 답변했다. 학생들이 ‘과

거의 역사적 사실'에 주로 흥미를 보이면서도 역사 교육의 목적이 올바른 역사관 형성이라고 답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사 수업의 목적이 '현재 내 삶의 문제 해결에 시사적 도움 제공'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8%에 불과하였는데 1학기 말 조사에서는 13.08%로 늘었고, 국사 수업이 현재 시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학년 초 27.56%에서 1학기 말 32.24%로 늘어난 것을 볼 때, 국사 과목이 직접적으로 현재의 시사적인 면을 다루지는 않지만 국사 수업 중 교사가 시사적인 언급을 많이 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사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학년 초 국사 수업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업 방식을 강의식 60%, 문답식 14.22% 선택한 것에 비해서 토론식 12.44%, 탐구식 11.56%, 발표식 1.78% 선택하였다.<sup>42)</sup>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sup>43)</sup>

토론 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1.33%가 자주 해 봤고, 64.44%가 해본 적이 있으며, 34.22%가 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토론 수업이 보편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토론 수업에 대해서 학생의 16.89%가 흥미 있다고 답변했는데, 흥미있는 이유는 34.21%가 '다양한 의견과 그 근거를 알 수 있어서', 28.95%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라고 답변했다. 학생들이 활발한 토론의 과정에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같은 질문을 2006년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인문계열 학생 160명에게 했을 때, 36.3%의 학생이 강의식 수업, 22.5%의 학생이 토론식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 공업계 학생에게 토론식 수업이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43) HOLLAND 진로검사 결과 공업계 학생은 R형이 다수인데, R형은 교사의 주입식 수업이 발표수업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협동과제를 하는 것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

반면에 토론 수업 흥미도에 대한 설문에서 39.56%의 학생이 ‘보통이다’, 43.55%의 학생이 ‘흥미 없다’고 답변했다. 이유는 무려 44.92%의 학생이 ‘귀찮아서’라고 답변했고, 25.13%의 학생이 ‘여러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서’라고 답변했다. 이는 학생들의 수업 중 수동성과 종합적 사고력 부재를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1학기 말 국사 수업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업 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토론식 수업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학년 초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고, 토론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심지어 10.74%인 23명의 학생은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4월 초에 ‘청동기 시대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사회 변화 추론하기’를 주제로 매우 즐거운 분위기에서 활발한 토론 수업을 했는데, 1학기 말 설문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적잖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토론수업에 흥미를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이 16.89%(38명)에서 22.90%(49명)으로 늘어난 것에 위안을 삼았다.

토론수업에 흥미를 가진 학생 49명 중 40.82%인 20명의 학생이 ‘다양한 의견과 그 근거를 알 수 있어서’, 24.49%인 12명의 학생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어서’ 토론수업이 흥미 있다고 응답하였다. 토론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이다. 반면, 토론에 흥미를 느끼지 못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년 초와 마찬가지로 토론하는 것이 귀찮아서 흥미가 없다고 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학년 초에 비해서, 토론하는 방법을 몰라서 토론이 싫다는 학생은 8.56%(16명)에서 5.45%(9명)으로 줄어든 반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해서 토론이 싫다는 학생이 17.11%(32명)에서 26.06%(43명)로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토론수업을 하면서 토론의 방법은 어느 정도 익혔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토론수업에 부정적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역사적 사고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학년 초에는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52%, 117명), ‘역사적 사건에 대한 탐구 분석력’(25.33%, 57명)이라고 답변했지만, 학기 말에는 각각 44.86%(96명), 16.36%(35명)으로 줄어들고, 학년 초에 ‘역사적 통찰력<sup>44)</sup>(7.56%, 17명)’, ‘역사에 대한 비판력(9.78%, 22명)’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학기 말에는 14.02%(30명), 17.29%(37명)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사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고등 사고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역사적 사고력 중에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역사적 상상력’을 선택한 학생이 학년 초 5.33%(12명) 1학기 말 7.48%(16명)로 가장 적은 것은 기존의 역사 교육 현장에서 역사를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합리성과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자 스스로도 역사적 상상력을 강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역사의식 함양에 가장 도움을 주는 경우는?’이라는 설문에 학년 초 35.56%(80명), 1학기 말 35.05%(75명)의 학생이 ‘사극 시청’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 하였다고 하지만 허구적인 상상력의 결과물인 사극이 학생들의 역사의식 함양에 가장 도움을 준다는 것은 ‘역사적 상상력’을 역사적 사고력이라고 여기는 학생이 극히 적었던 위의 설문 결과와 연관 지어 볼 때, 모순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생들은 허구성이 강한 사극을 통하여 역사인식을 정립해 나가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

44) 정선영(「역사교육의 최종 목표와 역사적 통찰력」, 『역사교육』 제108호, 33:2008)은 “역사적 통찰력은 사물이나 현상을 넓고 깊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 고 하면서, 같은 책의 34쪽에서 역사적 판단력과 통찰력은 모든 사고 활동의 최종 단계에서 얻어지는 종합적인 사고이며, 심지어 역사적 사고력의 범주를 뛰어넘는 최상위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극이나 시뮬레이션 게임 등 풍부한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의 동기를 부여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자료를 제시하여 분석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사극이나 시뮬레이션 게임의 허구적인 면을 비판하게 한다면, 역사 수업을 통하여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 개개인의 사고력은 제한적이고 수준이 다양하므로, 학생 개개인의 생각을 서로 펼치고 공유하여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sup>45)</sup>을 모색해야 하는데, 가장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토론학습을 제안한다. 학생들은 토론 수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편이지만, 그것은 경험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주 토론을 하다보면 토론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확산·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고, 무엇이 잘 못된 것인지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개선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의 자질도 함양될 수 있다.

바람직한 역사의식 함양에 강의식 수업이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학생이 학년 초 16%(36명)에서 27.10%(58명)로 늘어난 것은 학생들이 강의식 수업을 선호하며, 역사교사의 역사인식 태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식 역사수업이 바람직한 역사의식 함양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학생이 학년 초 4.89%(11명)에서 9.35%(20명)로 늘어난 것은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주장하며 타인과 소통했던 토론수업의 경험이 자기 주도적 역사학습 내지는 자신의 역사의식

---

45) 최상훈(「역사적 사고력의 의미와 하위범주」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83:2005)은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마련해줘야 한다.”고 하였다.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여긴 학생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짐작된다.

1학기 말 설문조사에서 한 학기의 국사수업을 통하여 국사 과목에 대한 흥미와 시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역사를 통하여 고등 사고력을 배울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학생이 많아졌다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토론수업에 대한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 토론수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지만, 토론의 절차를 익히고 발표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잠시 토론수업에 대한 회의가 생겼지만, 경험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2학기에 토론수업을 2회 더 하고, 설문조사를 다시 하였다.

## 나. 토론수업 3회 실시 후 설문조사

### (1) 설문내용과 결과

피라미드토론방식을 적용한 토론수업을 3회 실시 후, 토론수업 전 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자작 설문지를 사용하여 ‘국사 교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11월 1주 수업시간에 실시하였다. 설문문의 내용은 1학기와는 다르게 토론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으로 구성했다. 설문내용과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토론수업 3회 실시 후 설문내용과 결과

번호	문항 내용	선택지문				
		①	②	③	④	⑤
1	토론수업 이후 국사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매우 흥미 있다	흥미 있다	보통이다	흥미 없다	싫어한다
		30(14.56%)	80(38.83%)	63(30.58%)	17(8.25%)	16(7.77%)
2	토론수업 이후	아주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아주

	국사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어렵다
		25(12.14%)	58(28.16%)	92(44.66%)	22(10.68%)	9(4.37%)
3	토론수업 이후 토론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매우 흥미 있다	흥미 있다	보통이다	흥미 없다	싫어한다
		25(12.14%)	72(34.95%)	74(35.92%)	19(9.22%)	16(7.77%)
4	(3번에 ①, ②를 답한 학생만 포함) 토론 수업이 흥미 있는 이유는?	학생 중심의 활동이 많아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어서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근거를 알 수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24(24.74%)	23(23.71%)	8(8.25%)	19(19.59%)	23(23.71%)
5	(3번에 ④, ⑤를 답한 학생만 포함) 토론 수업이 흥미 없는 이유는?	귀찮아서	토론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여러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서	상대방의 의견을 차분히 듣고 있기가 힘들어서
		12(34.29%)	4(11.43%)	6(17.14%)	11(31.43%)	2(5.71%)
6	국사수업에서 했던 토론 수업 중 가장 흥미 있었던 토론의 주제는?	유물·유적을 통해서 청동기시대 사회변화 추론하기	고려 말 온건파 사대부와 혁명파 사대부의 분화	조선 초 왕권과 신권의 관계	병자호란 당시 주화론과 척화론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를 통한 세도정치시기 사회모습 추론하기
		53(25.73%)	39(18.93%)	18(8.74%)	50(24.27%)	46(22.33%)
7	토론수업이 역사적 관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주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0(14.56%)	90(43.69%)	67(32.52%)	11(5.34%)	8(3.88%)
8	토론수업이 사	아주	도움이	보통이다	도움이	전혀

	회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된다	된다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24(11.65%)	76(36.89%)	83(40.29%)	16(7.77%)	7(3.40%)
9	역사적 사고력 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통찰력	역사에 대한 비판력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탐구 분석력
		22(10.68%)	30(14.56%)	32(15.53%)	73(35.44%)	49(23.79%)
10	다음 중 바람직한 역사 의식 함양에 가장 도움을 주는 경우는?	사극 시청	토론식 역사수업	강의식 역사수업	역사관련도서 읽기	현장체험학습(유적지 답사)
		78(37.86%)	38(18.45%)	38(18.45%)	22(10.68%)	30(14.56%)

## (2) 결과 분석

토론수업 이후 국사 과목에 흥미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학년 초 37.33%(84명), 1학기말 50%(107명), 11월 53.39%(110명)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토론수업이후 국사과목이 쉽게 이해된다는 학생은 학년 초 25.77%(58명), 1학기 말 24.29%(52명), 11월 40.30%(83명)였다. 2학기 토론수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역사 이해에 많은 도움을 받은 듯하다. 토론수업 이후 국사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면서 이해도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토론수업에 대하여 흥미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학년 초 16.89%(38명), 1학기 말 22.90%(49명), 11월 46.09%(97명)였다. 1학기 말 조사에서 학생들이 토론수업을 부담스러워 하고 부정적으로 여긴 이유는 토론수업의 경험 부족 때문이다. 2학기 피라미드토론을 2회 했고, 문답식으로 간단한 토론(46)을 2회 했다. 토론의 절차가 익숙해졌고, 논거에 의해 자신의 주장을

46)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하여 교사가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생들을 찬, 반으로

하면서 타인을 설득하는 토론의 재미를 알게 된 것이다.

토론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을 대상으로 토론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 ‘학생 중심의 활동이 많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학년 초 7.89%(3명), 1학기 말 8.16%(4명), 11월 24.74%(24명)로 11월에 급격히 늘어났다. 토론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 11월에 급격히 늘어난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토론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론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 하는 학생<sup>47)</sup>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주목할 만한 것은 ‘귀찮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학년 초 44.92%(84명), 1학기 말 47.27%(78명), 11월 34.29%(12명)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토론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활동이 많다 보니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토론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실제 해보면서 서서히 흥미를 느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서’를 선택한 학생이 학년 초 17.11%(32명), 1학기 말 26.06%(43명), 11월 17.14%(6명)였는데 비해서, ‘여러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학년 초 25.13%(47명), 1학기 말 18.79%(31명), 11월 31.43%(11명)였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토론수업을 1회 했을 때는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토론수업을 3회 이상하고 나서는 말하기는 되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토론수업 1회 때보다 다양

---

나누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게 한다. 일종의 세미나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47) 토론에 흥미를 느끼지 못 하는 학생(보통이다. 흥미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학년 초에는 전체 225명 중 187명으로 83.11%였고, 1학기 말에는 214명 중 165명으로 77.10%였다. 11월 설문에서는 토론수업에 흥미가 없는 이유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토론수업 흥미도 설문에 ‘보통이다’를 선택한 학생을 제외하고, ‘흥미 없다’를 선택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흥미가 없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한 관점의 주장들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국사수업에서 했던 토론수업 중 가장 흥미 있었던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유로운 문답식 토론<sup>48)</sup>보다는 단계적인 피라미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수업에 흥미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업계 학생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면에서는 문답식 토론은 학급 구성원이 모두 토론에 참여하기 어렵지만, 피라미드토론은 학급 구성원 모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이 피라미드토론에 흥미를 느낀다고 볼 수도 있다. 즉, 토론 참여도와 흥미도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토론수업이 역사적 관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58.25%(120명)의 학생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9.22%(19명)였다. 그리고 ‘토론수업이 사회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의 설문에도 48.54%(100명) 학생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11.17%(23명)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토론수업이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와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고무적인 결과이다.

역사적 사고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역사적 상상력’을 선택한 학생은 학년 초 5.33%(12명), 1학기 말 7.48%(16명), 11월 10.68%(22명)로 점점 늘어났다. 본 연구자가 평소 수업 중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에 소홀했다고 느끼고, 역사를 과거의 맥락에서 이해시키기 위하여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학습활동과 발문<sup>49)</sup>을

48) ‘고려말 온건파 사대부와 혁명파 사대부의 분화’와 ‘조선 초 왕권과 신권의 관계’는 문답식 토론수업을 하였다.

49) 예를 들면 ‘유물·유적을 통하여 청동기시대 사회변화 추론하기’를 주제로 토론수업을 할 때 학습활동으로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전제 하에 청동기 시대의 유물, 유적,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역사일기 쓰기’를 하였다. 그리고 ‘고

지속적으로 한 결과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노력에 비해서 결과는 미미하지만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된 3차례의 설문을 분석해 보면, 역사적 사고력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라고 응답한 학생이 계속 적어진데 비해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통찰력’, ‘역사에 대한 비판력’, ‘역사적 사건에 대한 탐구 분석력’을 선택한 학생은 조금씩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역사적 사고력 중에서도 고등사고력에 해당하는 통찰력, 비판력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사수업 중 상상력을 자극하는 발문을 하고, 읽기자료를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논거가 있는 주장을 하게하고 그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하는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의 통찰력과 비판력이 함양되었고, 설문조사에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바람직한 역사의식 함양에 가장 도움을 주는 경우는?’이라는 설문에 대하여 ‘토론식 역사수업’을 선택한 학생이 학년 초 4.89%(11명), 1학기 말 9.35%(20명), 11월 18.45%(38명)로 점점 늘어난 것은 토론식 수업이 바람직한 역사의식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토론수업이 역사적 사고력과 바람직한 역사의식 함양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 11월 1주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서술 식 설문에 대한 답변

---

러 말 온건과 사대부와 혁명과 사대부의 분화’를 주제로 토론수업을 할 때는 ‘지금도 고려 말이라고 가정하고, 혁명파가 역성혁명에 성공하여 조선을 건국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조선 초 왕권과 신권의 관계’에서는 ‘내가 만약 왕이라면 6조직계제와 의정부서사제 중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병자호란 당시 주화론과 척화론’에서는 ‘내가 병자호란 당시 정치가였다면, 이 난국에 어떻게 대처했겠는가?’,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를 통해 세도정치 시기의 사회 모습 추론하기’에서는 ‘내가 만약 세도정치시기에 고위 관리였다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귀향간 선비였다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빈농이었다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등이 있다.

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토론수업을 통하여 배운 점이 무엇인지 적으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학습이해 능력 향상, 토론하는 방법,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하기, 의사소통능력, 다양한 관점 이해, 창의적 사고, 합의 도출, 객관적 태도,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인정하기, 자신감, 적극적인 태도, 근거 있는 주장으로 상대방 설득하기,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등이다. 학생들은 토론수업을 통하여 토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역사수업에서 토론수업이 필요한 이유를 적으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역사 학습에 대한 학생 참여도와 흥미도 고양, 다양한 관점으로 역사 이해, 상호 비판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 배양, 역사이해능력 향상, 역사관 정립, 올바른 역사 이해, 등이다. 학생들은 토론수업이 역사의 올바른 이해, 비판력과 같은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올바른 역사의식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여기고 있었다.

토론수업 3회 실시 이후 11월 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학생들은 토론수업에 흥미를 갖고 토론을 즐기게 되었고, 토론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과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할 수 있었고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의식을 갖게 되어 다문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토론활동지 분석

## 가. 동일한 대상(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표현하기

토론활동지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은 동일한 대상과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인식하거나 같은 관점에서 인식했다하더라도 다르게 표현한다. ‘청동기 시대 유물, 유적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 변화 추론하기’에서 특히 동일한 대상과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인식하는 면이 많이 드러난다. ‘비파형 동검’을 근거로 ‘계급사회’, ‘정복전쟁’, ‘족장의 권위 표현’, ‘전문 장인의 존재’, 등을 추론하였다. 논거와 주장은 모두 맞다. 다만, 관점이 다르니까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병자호란 당시 상황에서, 주화론과 척화론 중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나서, ‘역사가의 입장에서 정치가 최명길에 대한 인물평을 해봅시다.’ 학습 활동을 했는데, ‘속환 부녀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한 최명길의 태도를 ‘소신이 분명’, ‘약자 배려’, ‘남녀평등사상’,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였다. 동일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를 통해 세도정치 시기의 사회 모습 추론하기’에서도 ‘누각아집도’를 보고 ‘문란한 정치로 자연에 문헌 선비가 많았음’, ‘옛 선비의 여가 생활’, ‘양반들은 백성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풍류를 즐김’, ‘전망이 좋은 땅을 양반이 다 차지함’,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반면에 동일한 대상을 거의 유사한 관점으로 보면서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 관심의 초점에 차이가 나거나 표현의 차이일 수 있다. ‘청동기 시대 유물, 유적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 변화 추론하기’에서, ‘민무늬 토기’를 근거로 ‘농경 발달’ 혹은 ‘곡식의 저장’을 추론하였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잉여생산물을 저장하는 토기를 제작한다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병자호란 당시 상황에서, 주화론과 척화론 중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가?’에서 ‘최명길이 나섰다. 자신이 스스로 청군 진영으로 나아가 사태의 추이를 살피고 강화(講和)를 청하면서 시간을 벌겠다고 요청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적의 진영을 찾았다가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간파될 경우, 자칫 목숨을 잃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최명길은 적진으로 들어갔고, 그가 청군 장수와 담판을 벌이는 동안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외교적 수완이 뛰어나다.’, ‘상황판단 능력이 뛰어나다.’, ‘위기대처능력이 뛰어난 냉철한 정치가다.’ 등으로 비슷한 관점인데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를 통해 세도정치 시기의 사회 모습 추론하기’에서도 정약용의 ‘애절양’에 대해서 세금 수탈이 심했다는 것을 ‘삼정문란’, ‘부당한 세금 징수’로 표현했고, 민생불안을 ‘백성의 곤궁한 삶’, ‘도망가는 백성들이 많았을 것이다.’, ‘민심 동요’, ‘백성에 대한 억압이 심한 시대’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화반죽사’에 대해서도 ‘관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 ‘탐관오리가 판을 치던 시대’,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대’ 등으로 같은 생각을 다르게 표현한다.

동일한 대상이나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읽고 표현하는 것을 조한욱(『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12-13:2000)은 ‘두껍게 읽기’라고 표현했다. “두껍게 읽기’란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인문과학에서의 글읽기에 전제가 되는 방법으로서 클리포드 기어츠의 “두꺼운 묘사 thick description” 개념에 힘입은 것이다. 인문학에서는 하나의 대상이 담고 있는 여러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연과학에서는 물체와 관련된 외형적, 객관적 사실만을 묘사한다. 반면에 인문과학에서는 트로이전쟁의 사과, 뉴턴

의 사과, 빌헬름 텔의 사과와 같은 역사적 층위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사과가 파생시키는 의미의 연상 작용도 있을 것이다. 외형적으로 사과에 대해 표현하지만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인문학 또는 인류학에서의 묘사는 원래가 두꺼운 묘사이며, 이 두꺼운 의미의 층위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두껍게 읽은 역사적 자료는 역사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확인하려던 종래의 과학적 역사와는 확연하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 했는데 ‘다른 가능성’에 대한 본 연구와 관련된 본 연구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역사학의 연구대상은 다양한 군상의 인간이다. 인간의 특징을 유형별로 나누어 인간을 몇 가지 종류의 인간으로 나눌 수 없듯이, 구체적인 개개의 역사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객관화시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무리하게 일반화시키면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오십보와 백보는 분명히 다르다. 연한 회색과 짙은 회색도 분명히 다르다. 다르다와 틀리다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다르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일한 역사적 대상 혹은 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학생들의 글 읽기와 말하기 그리고 글쓰기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역사이해의 태도라고 여겨지며 굳이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역사이해의 태도가 결국은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다듬기

학생들은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

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과 표현은 존중해야 하지만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아 주어야 하고 근거가 부족하면 채워 주어야 한다. 오류가 있거나 근거가 부족한 주관적 생각들은 교사에 의해 교정되거나 보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토론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종합하면서 학생 스스로 타당한 의견으로 다듬어 간다.

‘청동기 시대 유물, 유적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 변화 추론하기’ 수업에서, 김○○학생은 ‘비파형 동검으로 전쟁을 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소모둠(4명)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이 선택되지 못 했고, ‘집터 크기가 다양한 것을 보았을 때 계급이 생겼을 것이다.’, ‘민무늬토기로 음식을 저장했을 것이다’가 선택되었다. 그런데 4 대 4 토론에서는 ‘비파형 동검은 족장의 위엄을 나타내는 무기로 계급사회였다.’, ‘민무늬 토기에 음식을 저장하였다.’가 선택되었다. 그리고 전체토론에서 ‘집터의 크기가 다양한 것을 볼 때 생산력의 증대와 빈부의 격차가 발생했다.’, ‘거푸집으로 거친무늬거울, 비파형동검을 만들고 민무늬토기를 만드는 전문적인 장인이 등장하였다.’, ‘청동거울로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다.’, ‘비파형동검, 고인돌, 거친무늬거울은 지배계급과 관련된 유물·유적이므로 계급사회였다.’가 선택되었다.

김○○학생은 토론 결과를 참고로 ‘청동기시대에 자신이 살았다면’이라는 주제로 일기를 썼다. ‘추수를 해서 민무늬 토기에 곡식을 저장했는데 적이 쳐 들어 왔고, 족장은 비파형 동검으로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해서 고인돌을 만들었으며, 제사장이 청동거울로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다.

‘비파형동검이 칼이면 무기일 것이고 청동기 시대에는 전쟁을 했을 것이다.’라는 단순한 생각이 토론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종합하면서, “비파형 동검은 족장이 사용한 무기로써 청동기 시대는 계급사회였고 정복전쟁이 빈번하였다”로 좀 더 타당하게 보완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또한 김○○학생은 무기인 비파형동검에 관심이 많아서 청동기 시대를 전쟁의 시대로 보았지만 다른 학생은 집터, 민무늬토기, 거푸집, 청동거울 등 다양한 대상에 관심을 보였고, 계급사회, 빈부의 격차, 생산력의 증대, 농경의 발달, 전문적 장인의 출현, 제사장의 존재 등 다양한 해석을 하였다.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생각과 표현으로 소통하지 않았다면, 장님이 소의 각 부분을 만지고 각각 다른 동물의 형상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하여 타인의 다양한 생각과 표현을 수용하면서 단순하고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타당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토론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이해와 함께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한 것이다. 피라미드토론이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함양과 종합적 사고력 신장에 유용한 바람직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임을 알 수 있다.

#### 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토론을 하다보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미송리식 토기는 손잡이가 달린 물동이였을 것이다.’, ‘미송리식 토기는 모양이 예쁘니까 지배계급이 사용했을 것이고, 민무늬토기<sup>50)</sup>는 피지배계급이 사용했을 것이다.’, ‘애절양을 볼 때 세도정치시기에는 세금 부담이 커서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가 감소했을 것이다.’, ‘세한도와 나비를 볼 때 그림 그리기가 양반의 교양이었으며, 양반이라도 사회경제적 지위

---

50)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28쪽의 민무늬 토기 그림이 깨진 조각을 붙인 것이어서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다.

가 달랐을 것이다.’, ‘청동기 시대 작은 크기의 토기는 유골을 담은 항아리로 화장(火葬)의 풍습이 유행했을 수도 있다.’, ‘청동거울은 전쟁 때 빛을 비추어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돌무지무덤은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한꺼번에 묻은 공동묘지였다.’ 등이 있다.

일반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탁월한 발상부터 지나친 상상력에 의한 사실의 왜곡까지 다양하다. 논리의 비약이 심해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무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사가 내용 첨삭으로 교정해 준다. 그러나 어쩔 때는 교사도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교사가 이런 곤혹스러운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학생 개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틀린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서 창의적인 생각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조한욱(앞의 책, 13-17쪽)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런 창의적 발상을 ‘다르게 읽기’, ‘깨뜨리기’ 라고 표현했다. ‘다르게 읽기’란 역사학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역사를 보는 관점과는 다른 맥락에서 역사를 파악하려는 시도로서, 전통적으로 권력 지향적이고 승자(勝者) 중심적인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서술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깨뜨리기’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역사학이 유지해왔던 역사의 이해와 서술방식을 해체시키는 작업으로 정형화된 틀을 새로운 방식으로 성찰하여 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르게 읽기’와 ‘깨뜨리기’와 같은 시각의 역사 읽기는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역사를 풍부하게 만들고 폭넓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은 역사읽기의 정형화된 틀을 깨는 새로운 역사읽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항상 호기심을 갖고 의문

을 제기하는 사람이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들에 의해서 학문을 발전하고 세상은 변화한다. 창의적 의견에 대해서 가급적 존중하고 칭찬하면서, 교사도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가 쌓이고 교사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피라미드토론의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와 같은 소수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의해 묻혀 버릴 수도 있으므로, 전체 토론 과정에서 선택되지 못한 개인의 의견도 발표하고 의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전체토론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같은 소수의 특별한 생각이 의제가 되면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고, 기발한 생각을 한 학생에게는 다른 학생들의 의견과 비판이 자신의 생각을 보다 보편 타당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수의 특별한 생각들을 존중하는 토론의 과정 속에서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다문화사회의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위하여 개발한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이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다원적 가치와 다원적 역사 이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보기 위하여 우선 학생 실태 파악을 위하여 3월 초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2학년 기계과 8개 학급 230명을 대상으로 ‘국사 교과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결과, 연구대상 학생들은 토론수업에 대한 경험 부재와 공업계 학생의 특

성상 토론수업에 부정적이었다.

4월 초, ‘청동기 시대 유물·유적을 통하여 사회변화 추론하기’ 토론수업을 하고, 1학기 말에 토론수업에 대한 학생의 반응과 한 학기 수업 후 국사교과에 대한 반응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번째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토론수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토론수업 경험 후 토론의 절차를 익히고 발표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토론수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이 늘어나는 회의적인 결과가 나왔다.

토론수업 1회 실시 후 설문결과를 참고하면서 9월, 10월에 걸쳐 토론수업을 2회 더 실시한 후 11월 1주에 세 번째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학생들은 토론수업에 흥미를 갖고 토론을 즐기고 있었고, 토론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 역사적 사고력, 올바른 역사의식,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등을 배우고 있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이 학생들이 다원적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결과를 산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성한 토론활동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동일한 대상(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표현한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은 토론을 통하여 상호 보완되면서 보편타당하게 다듬어지고 정리된다. 토론활동지 분석을 통해서도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이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에 효과적인 수업모형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 지도안’에 대한 컨설팅

과 실제 수업을 참관한 교사들의 수업참관록에서 지적된 내용을 참고하면, ‘피라미드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도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자호란 당시상황에서 주화론과 척화론 중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가?’의 수업을 참관한 □□□교사는 “학생들이 토론 전에 보다 많은 사료를 접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읽기자료로 제시된 사료의 분량이 적거나, 한 쪽의 관점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일방적인 토론이 되고, 뻔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읽기자료의 분량과 관점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수는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를 통해 세도정치 시기 사회 모습 추론하기’ 교수학습지도안에 대해서, “‘누각아집도’, ‘화반죽사’, ‘애절양’ 등의 자료를 선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교사가 선정하는 작품은 수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며, 학생 활동의 외연을 한정하기 때문이다. … 19세기는 변화의 시대였다. 세도정치라는 표현으로 어두운 이미지가 강하지만, 민의 역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지식인들은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추구했다. 이 지도안을 통해서 ‘누각아집도’에서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 그 시대에 관한 무엇을 생각하도록 할 것인지가 뚜렷하지가 않다. ‘화반죽사’와 ‘애절양’은 모두 문학 작품이며, 세도정치시기의 정치부패를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장르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라고 마찬가지로 읽기자료 선정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교사가 피라미드토론을 통하여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시도한다고 하면서도, 읽기자료의 구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하고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한 지적이다. 다양한 관점의 풍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읽기자료를 선정하고 구성하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읽기자료의 선정과 구성은 교사가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팀을 구성하여 함께한다면 보다 다양한 관점의 풍부한 읽기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라미드 토론을 적용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은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와 다양한 가치 존중의 태도를 길러주면서 역사적 사고력도 신장시켜 주므로,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역사교육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바람직한 교수학습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당히 유의미하며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강병재(2007), 『생각의 힘을 키우는 토론수업』, 교보문고.
- 국사편찬위원회(2006),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 김주환(2009), 『교실 토론의 방법』, 우리학교.
- 김한중 · 이영효 · 양호환 · 최상훈 · 양정현 · 유용태 · 강선주(2005),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 나무를 심는 사람들(2002), 『연극으로 놀며 배우며』, 나라말.
- 샘 와인버그(2006), 『역사적사고와 역사교육』, 책과 함께.
- 송창석(2001),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방법』, 백산서당.
-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2006), 『세상을 바꾸는 발표와 토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여희숙(2009), 『토론하는 교실』, 파란자전거.
- 전국역사교사모임(2008),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 조한욱(2000),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 최상훈 · 이영효 · 김한중 · 강선주(2007),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 함께.
- 김남국(2005), 「다문화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 정치논총』, 제 45집 4호.
- 김민수(2007) 「고등학생의 역사인물 이미지 형성과 변형-홍선대원군과 명성황후 사례-」, 『역사교육연구』, 제6호.
- 김민수(2009), 「일반계 고등학생의 근현대사 이해」, 『제10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학술 자료집』.
- 김한중(2006), 「다문화 사회의 역사교육-캐나다 BC주의 경우」, 『역사교육연구』, 제4호.
- 김한중(2008),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제8호.
- 박남수(2000), 「다문화 사회에 있어 시민적 자질의 육성-사회과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모색」, 『사회과 교육』, 제33호.
- 박용희(2009), 「민족사의 논리와 다민족, 다문화의 현실」, 『동학연구』, 제26집.

오연주(2006), 「토론수업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중등 사회과 교사의 인식」, 『사회과 교육』, 제 45권 2호.

정문성(2004), 「토의, 토론 수업의 개념과 수업에의 적용모델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제12집 제1호.

정선영(2008), 「역사교육의 최종 목표와 역사적 통찰력」, 『역사교육』, 제108호.

한명기(2008), 「최명길, 현실에 발을 디딘 탁월한 정치가·외교가」, 『제 14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창의·혁신 리더십 교육』, 문화재청.

안창규·안현의(2008), HOLLAND 진로(적성) 탐색검사, 한국가이던스.



## 〈부 록〉

### 1. 학습 자료

가. ‘청동기시대 유물, 유적을 통해서 사회 변화 추론하기’

1. 청동기시대 유물, 유적을 통해서 사회 변화 추론하기

**청동기 시대 유물 유적을 통하여 사회 변화 추론하기**

**1. 본시 학습 단계 유형** 도형 1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4. 고조선 -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

**3. 청동기 시대의 사회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은?**

4. 유물 유적을 통한 고고학적 방법

**뫼비세검무늬도끼**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 나타난 새로운 양식의 도끼로서 청동기 시대 가장 이른 시기에 대량생산. 기원전 2000년 경에서 1500년 경에 걸쳐서 청동기 시대가 본격화될 때는 거의 필수품이 되는 중요한 유물이다.

**2. 본시 학습 요점** 도형 2

- 도형 1 본시 학습의 중요 유물
- 도형 2 본시 학습의 주요 소재
- 도형 3 본시 학습의 시기
- 도형 4 본시 학습의 유물
- 도형 5 본시 학습의 유물
- 도형 6 본시 학습의 유물
- 도형 7 본시 학습의 유물

**3. 학습 목표 체계** 도형 3

**학습 목표**

1. 청동기 시대의 주요 유적을 통하여 사회 변동을 추론할 수 있다.
2. 청동기 시대 문화를 통하여 고고학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3. 역사적 상상력으로 청동기 시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4. 청동기 시대 유물 유형** 도형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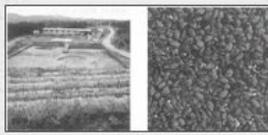
**유물**

- 석기 : 석촉, 석검, 석도끼, 석칼
- 청동기 : 청동검, 청동도끼, 청동칼, 청동도
- 도기 : 뫼비세검무늬도끼, 청동기시대도끼

**유적**

- 고대 유물 매장지
- 고대, 고대,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부여군 송곡리 기주계 유적과 탄의미**



**반달 돌칼**



**배귀날 도끼와 뿔 도끼**



**몸 짜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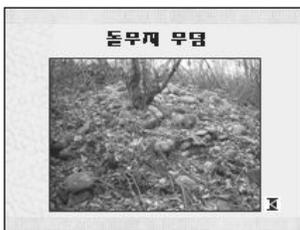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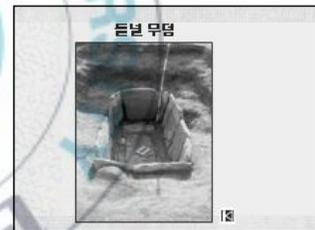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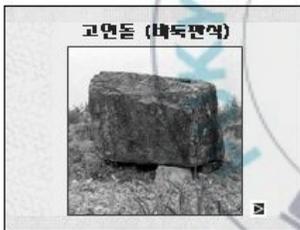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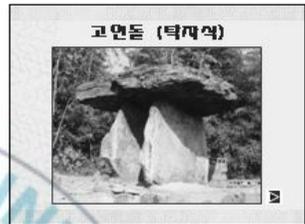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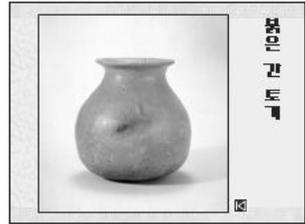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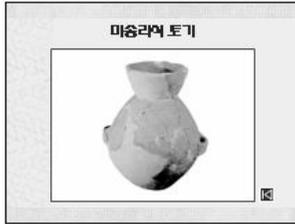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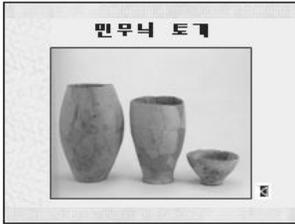


**배귀형 등검**



**기원 무늬 귀**





5. 모퉁을 위한 준비 - 모퉁 수배 지역 전체 1-2

**도론의 주제**

↓ 청동기 시대 유물 유적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 변화를 추론해 봅시다.

6. 모퉁을 위한 준비 - 나의 주거 형태에 대해 전체 1-2

**가설 설정 방법**

↓ 청동기 시대 유물 유적을 통하여 그 시대 사회의 변화를 추론하여 1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토론회를 통해 '나의 가설' 옆에 주경(가설)과 근거(유물 유적)를 적는다.

7. 피라미드 보론의 반영 방법 / 연필 2-1

**수모듬(4명) 토론**

- 4명이 모여서 4개의 의견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한다. 자신이 주장한 의견에 선택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공격하는 공격해서는 가자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선택한다.
- 선택된 의견 2가지를 토론을 통하여 논다.

7. 피라미드 보론의 반영 방법 / 연필 2-2

**피라미드 토론 방법 (4:4)**

- 8명이 4개의 의견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한다. 근거가 부족한 것은 배제다. 자연스럽게 주장자가 공격하면 수필하게 토론이 진행된다.
- 선택된 2가지의 의견을 토론을 통하여 논다.

7. 피라미드 보론의 반영 방법 / 연필 2-3

**피라미드 토론 방법 (모둠 대표 정하기)**

- 전체 토론을 대비해서 모둠의 대표 학생을 뽑는다. 개인적 자신의 의견이 선택되면 학생을 대표로 뽑는다.

7. 피라미드 보론의 반영 방법 / 연필 2-4

**피라미드 토론 방법 (전체 토론)**

- 6~8명을 모둠으로 하는 4개의 모둠에서 각각 2개의 의견이 결정되면, 모둠 대표 학생이 모둠 구성원이 합의하여 결정된 의견을 그 근거를 발표한다.

7. 피라미드 보론의 반영 방법 / 연필 2-4

**피라미드 토론 방법 (전체 토론)**

- 전체 토론을 할 때 5개의 의견을 5~4가지로 추려다. 강의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펼칠 수도 있다.
- 최종 선택된 의견을 파워포인트를 슬라이드 형태로 제시하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논다.

8. 역사 읽기 소개 / 연필 3

**역사 읽기 쓰는 방법**

- 경동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가정 하에 경동기 시대의 유물, 유적과 사회 변동을 고려하여 경동기연의 일상을 상상한 역사 읽기글 쓴다.
- 나의 일기를 발표해 본다.

9. 본시 학습 정리 및 복습 예시 / 연필

**본시 학습 정리**

- 본시 학습의 주요 내용을 교과서에서 찾아 놓음 그려 정리한다.

**차시 예고**

- 결거의 사용
- 경동기 결거 시대의 생활과 예술



나. ‘병자호란 당시 주화론과 척화론 중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가?’

**(가) 주화론(主和論)과 척화론(斥和論)**

1) **최명길의 주화론** - 화친을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를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신하가 절개를 지키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망하게 큰소리를 쳐서 오랑캐들의 노여움을 도발, 마침내는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 늘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국력은 현재 바닥나 있고 오랑캐의 병력은 강성합니다. 정묘년(1627)의 맹약을 아직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시고, 그동안을 이용하여 인정을 베풀어서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으며, 군량을 저축하여 방어를 더욱 튼튼하게 하되 군사를 집합시켜 일사불란하게 하여 적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상의 대책일 것입니다. <지천집>

2) **윤집의 척화론** -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 오늘날과 같이 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요, 오랑캐(청)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서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하물며 입란의 일은 터럭만한 것도 황제의 힘이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먹고 숨 쉬는 것조차 잊기 어렵습니다. …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 어찌 차마 화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인조실록>

**(나) 병자호란과 최명길**

1) 1636(인조 14)년 12월 14일, 개성을 통과하여 질풍 같이 달려온 청군 기마대는 양철평(지금의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까지 들이닥쳤다. 애초 강화도로 피난하려고 길을 나섰던 인조와 조정 신료들은 강화도로 가는 뱃길이 끊겼다는 소식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을 따름이었다.

바로 이 때 최명길이 나섰다. 자신이 스스로 청군 진영으로 나아가 사태의 추이를 살피고 강화(講和)를 청하면서 시간을 벌겠다고 요청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적의 진영을 찾았다가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간파될 경우, 자칫 목숨을 잃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최명길은 적진으로 들어갔고, 그가 청군 장수와 담판을 벌이는 동안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2) **최명길**은 당시 조정의 논의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논의를 위한 논의’에

빠지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결전(決戰)이나 완화(緩禍)의 계책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결전을 선택할 경우 의주까지 전진하여 싸움을 준비하되 심양에 사자와 국서를 보내 그들의 정황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 보다 낫다고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가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당시 척화신들 가운데는 여진족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또 명이 알면 질책할까 우려하여 청에 대한 어떤 형태의 사절 파견에도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명길은 ‘정보 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들과의 접촉을 강조하고 있었거니와 당시 조선을 다녀가던 명나라 사신들조차 ‘지피(知彼)’를 위한 차원에서 청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라고 종용할 정도였다.

3) 호란 이후 조선 정부는 청과 교섭하여 조선인 포로들의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이른바 속환(贖還)을 실시했다. 그런데 사대부를 지아비로 둔 유부녀들은 ‘정절을 잃은 여자’라는 지탄이 두려워 속환하는 도중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정 신료들 내부에서는 ‘정절을 잃은’ 자신의 부인과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논의가 비등해지고 있었다.

이기적인 일부 신료가 자신의 가족을 빨리 데려 오고 싶은 마음에 몸값을 올려서 가난한 백성들은 결코 자신의 혈육을 데려올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겨우 몸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조선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굶어죽는 조선인들도 적지 않았다.

대다수의 신료들이 전쟁 중 겪었던 충격 때문에, 또는 청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사실상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최명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화란(禍亂)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이에 그는 속환자들을 보호할 대책으로 심양에서 조선으로 이르는 길목마다 곡식을 쌓아두고 조선인 귀환자들을 구휼(救恤)하자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속환 부녀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최명길은 유일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만일 이혼을 허락한다면 속환을 원하는 부녀자가 없어져서 허다한 조선 여인들을 ‘이역의 귀신’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최명길을 가리켜 “조선의 풍속을 망치고 오랑캐로 만드는 자”라고 매도하고 있었다. **한명기. “최명길, 현실에 받을 디딘 정치가·외교가”**

다.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를 통해 세도정치시기 사회모습 추론하기'

작품	설명
	<p>문화재청의 도록과 이태호 교수의 책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 '전(傳) 조 대비 초상'- 조선시대 문신(文臣) 초상화의 격식을 갖춘 유일한 여성 초상화, 화려한 화관과 용잠으로 머리 장식을 하고 원삼을 입고 있다. 미세한 선을 통해 안면의 입체감을 살렸고 옷 주름에 음영 기법을 쓰는 등 사실적 묘사가 두드러진다</p>
	<p>세한도, 김정희 - 제주도 유배지에서 그림, 문인화, 어떤 시련과 혹한 속에서도 곳곳이 역경을 견뎌내려는 선비의 울곧고 바른 의지가 있는 그림</p>
	<p>나비, 남계우 - 조선 말기의 화가, 벼슬은 정3품에 해당하는 도정(都正)을 지냈다. 나비를 특히 잘 그려 남나비[南蝶]라고 불렸으며, 평생 동안 나비와 꽃그림만을 즐겨 그렸다. 조선 말기의 사실적이면서 장식성이 강한 화풍의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p>
<p>이학규의 「화반죽사」</p> <p>대나무 물들이지 마라 물들이면 채찍만 맞게 되리라 처음엔 자신의 차지이나 다음해엔 끝내 빼앗기리라 강 가운데 죽도 언덕에서 해마다 짙는 소리 산과 계곡에 퍼지고 물들일 겨를조차 없어 연줄 대어 서로 팔아 채운다 남쪽 수령들 노자 바침은 때도 없으니 오직 화반 받는 사람 기뻐할 것 생각하네</p>	<p>수령이 상관에게 뇌물로 바치기 위해 농민을 괴롭혔음을 비판하였다. 뇌물로 꽃무늬로 물들인 대자리를 바치기 위해 거두어들이기에 한도가 없었고 드디어 고을의 큰 폐단이 되었다. 꽃무늬로 물들인 대자리를 만드느라 해마다 죽도 언덕에서는 대나무 베는 소리로 산과 계곡에 가득하고 미처 물들일 겨를조차 없이 거두어들이 남쪽 수령들에게 노자 바치기에 여념이 없는 수령은 농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화반 받고 좋아할 상관만 생각하였음을 비난했다.</p>



정약용 「애절양」

갈밭의 젊은 아낙네 울음소리 그지없어  
관청문 향해 울부짖다 하늘보고 통곡하네  
군인 남편 못 돌아온 거야 있을 법도 하디  
지만  
예부터 男絶陽(남절양)은 들어보지 못했어라  
시아버지 장례 치르고 갓난아긴 젖 먹이는  
데  
三代(삼대)의 이름이 軍籍(군적)에 올랐다네  
달려가서 호소해도 범 같은 문지기 버티었  
고  
里正(이정)이 호통 치며 남은 소마저 끌고  
갔다네  
아이 낳은 죄라고 남편이 한탄하더니  
칼갈아 들어간 뒤에 방에는 피가 흥건하여  
라

누각아집도, 이인문 - 화면 중앙에 누각이  
위치하고 누각 뒤로 기암 절벽 사이로 산물  
이 흐르고 있어 그 계곡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하고 그 바위산에서 물과 나무를  
해오는 다동인 듯 주전자에 빨감이 양손에  
들려있다. 마당 한쪽에는 다기구와 찻물을  
끓이는 동자가 보이며 누각 안에는 청아한  
풍류를 즐기는 문인들이 있고, 거문고와 술  
병이 놓여 있고 차 시중드는 동자는 누각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문인들이 차  
를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다.

해거름에 다산은 마을 앞 바닷가 갈대숲에  
서 한 아낙이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  
다. 다산은 동네사람들에게 사연을 물었다.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당시에는 삼정이  
문란했고, 그중에서도 인두세가 지독하게  
독살스러웠다. 군대에 간 사람에게는 물론  
이려니와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세를 거뒀  
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 낳는 걸 두려워했  
다. 그래서 아낙의 남편은 늘어만 가는 자  
식들 때문에 내야 할 세가 두려워 누에를  
치던 방에서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렸다. 때  
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아낙이 갈대숲에서  
서러워 울었던 것이고, 다산은 이 내력을  
복받친 분노의 필치로 그려냈다. 그 애절양  
시편들 속에는 인근 마을에서 벌어진 아전  
들의 황포도 낱알히 기록되어 있다. 한 마  
을에서는 느닷없이 아전들이 들이닥쳐 밀도  
끝도 없이 기르던 황소를 끌어가버리고, 그  
런 중에 한 마을에서는 아전들이 마을에 들  
렀다가 동네청년들에 의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곤욕을 치렀다는 노래도 있다.

## 2. 토론활동지

가. ‘청동기시대 유물, 유적을 통해서 사회 변화 추론하기’

**토론을 해봅시다!**

학번		성명	
----	--	----	--

청동기 시대 유물·유적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 변화를 추론하여 1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그 근거도 적어 봅시다. 그리고 피라미드식 토론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종합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한 견해를 그 근거와 함께 적어봅시다.

피라미드 토론 활동지		
관련단원	Ⅱ. 선사 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 2. 국가의 형성 - 청동기의 보급	
토론주제	청동기 시대 유물·유적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 변화를 추론해봅시다.	
토론 대상	주장	근거(유물·유적)
나의 가설		
소 모둠 (4명)토론		
4:4 토론		
전체토론		

**역사 일기를 써 보자!**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전제 하에 청동기 시대의 유물·유적,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역사 일기를 써 봅시다.

.....

.....

.....

.....

나. ‘병자호란 당시 주화론과 척화론 중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가?’

**토론을 해봅시다!**

학번		성명	
----	--	----	--

읽기 자료(가)를 읽고,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이 옳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주장란에 ‘주화론’과 ‘척화론’ 중 선택하여 쓰고, 그 주장의 근거도 씁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식 토론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봅시다.

피라미드 토론 활동지		
관련 단원	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3. 근세의 정치 - 호란과 북벌운동	
토론 주제	병자호란 당시 상황에서, ‘주화론’과 ‘척화론’ 중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가?	
토론 대상	주장	근거
나의 생각		
1:1 토론		
2:2 토론		
4:4 토론		
전체 토론		

**나는 최명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읽기자료 (가)와 (나)를 읽고, 역사가의 입장에서 정치가 최명길에 대한 인물평을 해봅시다.

.....

.....

.....

다. ‘19세기 전반 회화와 시(詩)를 통해 세도정치시기 사회모습 추론하기’

**토론을 해봅시다!**

학번		성명	
----	--	----	--

19세기전반 문화 콘텐츠(회화와 시(詩))를 통하여 세도정치시기의 사회모습을 추론하여 1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그 근거도 적어 봅시다. 그리고 피라미드식 토론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종합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한 견해를 그 근거와 함께 적어봅시다.

피라미드 토론 활동지		
관련단원	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 4. 근대 태동기의 정치 - 세도정치시기의 사회모습	
토론주제	19세기전반 회화와 시(詩)를 통하여 세도정치시기의 사회모습을 추론해 봅시다.	
토론 대상	주장	근거(문화콘텐츠 : 회화와 시(詩))
나의 가설		
소 모듬 (4명)토론		
4:4 토론		
전체토론		

**사행시를 지어 보자!**

세도정치시기의 사회모습을 ‘세도정치’ 네 글자의 사행시로 표현하여 봅시다.

세  
.....

도  
.....

정  
.....

치  
.....